

『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18년 8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노영하 외 1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4일

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김재우, 권재욱 의원

나. 청원내용

- 시는 전국체육대회 중심시설로 박정희체육관 주차장터에 복합스포츠허브를 건립할 계획임. 지상2층 규모로 지하주차장, 볼링경기장,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며, 시가 직영할 계획임.
- 중소도시 수요에 전혀맞지 않는 40레인의 전국 최대 볼링경기장이 건립되면 구미시의 10곳에 불과한 볼링장은 문을 닫게 됨. 지역볼링장은 과잉경쟁으로 이용료가 전국 최저 수준이며, 최저임금상승,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.
- 볼링경기를 인근지역 및 구미시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전국체전을 진행할 수 있음. 충분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하여도 시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고, 볼링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'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다'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

못하였음.

- 서약서 첨부[전국체전 볼링경기를 구미볼링장(8곳)으로 활용 시 무료대관 및 봉사실시]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○ 해당부서 의견 : 전국체전추진단

- 국제경기 또는 국내공식경기 수행을 위한 볼링장 적정 규모는 32~36레인 이상이고, 전국체육대회는 최소 20레인 이상이 필요하나 관내에는 최대 16레인의 볼링장 밖에 없으며, 장기적으로 볼링인구 증가, 볼링선수 훈련장 마련, 공식경기 수행을 위하여 국·도비(65%)가 지원되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필요함.
- 볼링장 건립 취소는 그 동안 유치확정 후 1년 3개월에 소요된 행정절차를 다시 관련부처와 변경협의 승인을 받아야할 경우 2020년 10월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워 계획변경 불가.
- 2017년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구미시민들이 향후 하고 싶은 운동 선호도 조사에서 볼링이 2위(①수영 ②볼링 ③배드민턴 ④걷기 순)를 차지하였으며, 2017년 볼링장 건립 계획으로 2020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여 구미시가 주개최지로 확정되어 복합스포츠센터 내 볼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됨.
- 구미시는 사설볼링장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향후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 이용 위주로 볼링장을 운영할 계획이며, 상주클럽 배제로 사설볼링장 피해를 최소화하겠음.
- 청원내용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민원인들의 주장과는 의견차가 있으나,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추진되어야 함.